

▣ 박근종 칼럼 ‘빛의 늪’에 빠진 20대 청년들 ‘캄보디아의 뗏’에 걸려들지 않게 해야



생활 물가와 집값 상승, 취업 난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빛의 늪’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 데이터처가 지난 10월 2일 발표한 ‘9월 소비지출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지출가치수는 117.06(2020년 100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채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오르며 전월 1.5%보다 1%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만큼 서민들 특히 소득 취약층의 삶이 팍팍하다는 방증(傍證)이다. 물가가 오르면 반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갑이 얹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 2025년 10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둘째 주(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격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며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소진되고 상승거래가 발생하면서 0.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에도 매수 문의가 늘어나면서 수요자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된 것이 서울 전체 상승세로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20~29세) 취업자는 343만 5,000명으로 지난해 9월 356만 9,000명보다 13만 4,000명 줄었다. 10대를 뺀 전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 취업자수는 2022년 11월(-4,000명) 이후 2년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7개월째 하락세다. 60세이상 고용률 48.3%보다 3.2%포인트 낮다. 최근 전체 고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청년들 일자리만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기껏 일자리를 구해도 임시직, 계약직 등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양질의 신입 일자리를 얻기는 점점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저출

산에 따른 인구 감소 요인을 뺀 고용률을 봐도 20대 취업난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0대(20~29세) 고용률은 60.7%로 전체 고용률 63.7%보다 3%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9월 60.9%보다는 0.2%포인트 낮았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9월(-0.2%포인트) 이후 13개월 연속 오르지 못하고 있다. 빛을 갠으려면 제대로 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자리 상황은 막막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고,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한계 청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에서 남파·감금된 청년들이 ‘빛 탕갈’을 미끼로 5,600여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는 30대(195조 4,933억 원), 40대(221조 1,409억 원), 50대(172조 2,824억 원), 60세 이상(132조 1,934억 원)보다 적지만 부실 정도는 가장 심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대가 평균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 시중은행의 7월 기준 20대 이하 대출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8%로 30~50대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6개월 이상 밀린 청년들도 5만 명에 육박하고, 누적 연체액은 2,5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이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신용유이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5,887명으로 2021년 말 5만 2,580명보다 2년 반 사이에 25.3%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자자는 54만 8,730명에서 59만 2,567명으로 8% 늘었는데, 20대는 3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을 노크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남파·감금 피해가 급증한 것은 속깊게 눈치를 챘다는 일부 젊은이의 속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취업 실패에 절망한 청년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 면도 없지 않다. 빛 독촉에 시달리던 일부 젊은이가 부

채를 탕갈해 준다는 유인에 캄보디아행을 택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불안한 일자리와 소득,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 불어나는 빛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막대한 벼랑으로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채무조정과 신용 회복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꿈을 잃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뗏’에 걸려 도둑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14일(현지 시각)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Z세대(1995~2010년 출생자 | 10~20대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정권을 무너뜨렸다. 지난달 네팔에 이어 청년층 시위로 정부가 붕괴한 이후 두 번째 사례로 읽힌다. 젊은 청년들의 저항은 남미의 파라과이와 페루, 아프리카 소모로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나리마다 시위를 촉발한 계기와 사건은 다르겠지만 특권층의 부패와 경제 불평등, 청년층 실업이 공통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단수·정전 등 생활고와 만연한 부패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의 80%가 하루 2달러 이하 수입으로 살아가는 세계 최빈국 청년들의 절망이 깊게 깔려 있다. 젊은 청년들은 “정부가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거리로 나섰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상실을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는 신흥국 청년들에게 실업 충격을 안겼고, 그 분노가 체제를 흔드는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젊은 청년들 분노의 그림자는 지금 한국 사회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청년층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60세 이상 48.3%보다 낮았다. 한국 젊은 청년들은 마다가스카르처럼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조용한 방식’으로 체제에 대한 냉소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15~64세 기준 고용률은 70.4%,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며 수치상으

로는 완만한 회복세라고 자화자찬(自畫自讚)하지만, 소비 쿨론 효과에 기댄 반짝 호황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개혁일 것이다. 미래 산업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와 함께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 과제 중 하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는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 사회적 불균형과 기회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첫 직장에서부터 불균형을 체감하고,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술 여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노동 환경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공정함’이란 동일(同→)한 처우뿐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별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일의 형태를 존중하는 제도적 유연성도 공정의 중요한 요소다.

특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란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단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 담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호에너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하청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임금·복지 등의 격차와 같은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구직 의욕 촉진, 실질형 취업 지원, 상시직 일터 조성으로 모든 청년들의 첫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져 ‘빛의 늪’에 빠진 20대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뗏’에 걸려들지 않게 해야만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부산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

선보여 공연·영상·관광 융합 콘텐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재)영화의전당(대표이사 고인범)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을 배경으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 공연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부산포」는 관객이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으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루프씨어터)에서 입체 투사 기법(3D 비디오 매핑)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해 역사 속 부산포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인 ‘부산포 해전’을 소재로, 전문 배우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배우 등 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역사적 감동과 첨단 영상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주연인 이순신 역에는 영화 「변호인」, 「강철비2: 정상회담」 등에서 활약한 조유신 배우가 맡아, 명장 이순신의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고뇌를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부산포 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은 ‘부산시의 날’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부산포 해전은 1592년 임진왜란

이우유 기자

첫해 부산 앞바다에서 왜선 100여 척을 격파하며 제해권을 확보한 전투로, 조선 수군의 위상을 드높인 승전으로 평가된다.

이순신 장군 역시 「난중일기」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안긴 전투’로 언급할 만큼 높게 평가했지만, 한산도·명량·노랑대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포 해전을 ‘부산대첩’으로 재조명하고, 첨단 영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부산만의 역사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케이(K)-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 서사는 글로벌 공감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받는다.

실제 ‘불멸의 이순신’을 본 한 미국인이 감명받아 제작한 만화가 12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세계적 잠재력이 입증됐다.

또한, 짧고 몰입감 높은 공연 콘텐츠는 관광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시는 이번 공연을 ‘부산형 케이(K)-콘텐츠 관광 모델’의 대표 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화의전당 누리집(dureraum.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금은 1인당 1만 원이고 당일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공연은 회당 1,000명을 모집한다.

김현재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공연·영상·관광이 융합된 콘텐츠로 발전시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글로벌 관광 허브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신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천시, 드론 기반 3D 입체지도 서비스

2026년 1월부터 시민 누구나 실감형 3D 지도 이용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도시정보 접근성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한 3차원(3D) 입체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대시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해 5도, 강화 북단, 공항 관제권역 등 비행 금지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 지역을 대상으로 3cm급 고해상도 드론 촬영을 실시하고, 인천 전역 687㎞를 현실감 있게 구현한 3D 입체모형을 완성해 지도 서비

스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축된 입체지도는 오는 11월 사업 준공 이후 인천시 지도시스템에 탑재돼, 2026년 1월부터는 내부 행정망과 시민이 직접 접속해 볼 수 있는 공개 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시·군 영상과 시민 구척 결과물이 전시회 및 시민의 날 행사 홍보부스 등을 통해 공개됐으며, 구급·네이버 등 민간 지도 서비스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시 공간정보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3D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도시 계획, 재난 안전, 관광,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3D 지도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타임즈	www.thesegeye.com 기사제보: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 A 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2025 서울 유아차 런'...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교통통제

11.1.(토) 오전 8시~12시(출발 9시) 5천 가족 참가... 신청 개시 하루 만에 접수 마감

오전 6시~12시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7KM 주요 구간 단계별 통제... 불편 최소화

〈슈돌〉김준호·장동민·김윤지, '서울베이비엠버서더' 우해림·안정은 가족 등 총출동



유아차에 탄 자녀는 물론, 유아차를 졸업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 등 총 5,000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 마라톤 행사인 '한화손해보험과 함께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이 11월 1일(토)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은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주)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5월에 열린 첫 번째 대회(1,000가족) 대비 참가규모를 5배로 늘려 총 5,000가족, 약 23,000명이 참가하

는 대규모 대회로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참가신청 개시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코스도 지난 대회(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 5KM)보다 더 길어졌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지나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7km 구간으로, 서울 도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12시(정오)까지 대회 구간 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고 밝히고,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휴일 교통량 및 대회 상황을 고려해 구간별로 전면 또는 부분 통제가 이뤄질 예정으로, 카카오톡과 T맵, 네이버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을 통해 우회로를 안내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통통제 시간과 우회 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2025 서울 유아차 런(Run)' 누리집(https://seoulstrollrun.co.kr)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 유아차 런 사무국(☎02-338-0344) 또는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문의하면 된다.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은 11월 1일(토) 오전 8시부터 12시(정오)까지 진

행되며, 9시 토끼반(A, B그룹) 출발을 시작으로 거북이반(A, B그룹), 유아차 졸업반 순으로 출발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자의 속도와 페이스에 맞게 주행하되, 교통통제가 풀리는 12시까지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코스 후미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탑승해 종로지점(여의도공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코스 중간중간에는 참가 가족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어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우선, 러닝의 설렘을 여는 출발지(광화문광장)에서는 유아차를 꾸밀 수 있는 '유아차 커스텀 존(custom zone)'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스티커 존'이 마련돼 우리 가족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다.

출발 전에는 치어리더와 함께 하는 율동과 체조로 몸을 깨우고, 브라질 음악 선보이는 라틴 음악 그룹 '파커커션'의 신나는 타악기 퍼포먼스, 코스 중간의 대학교 치어리딩단과 요들 공연 등으로 유아차 러너들을 응원한다.

〈〈슈돌〉 김준호·장동민·김윤지, '서울베이비엠버서더' 우해림·안정은 가족 등 총출동〉

특히, 온가족이 함께 하는 러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특별한 손님들도 유